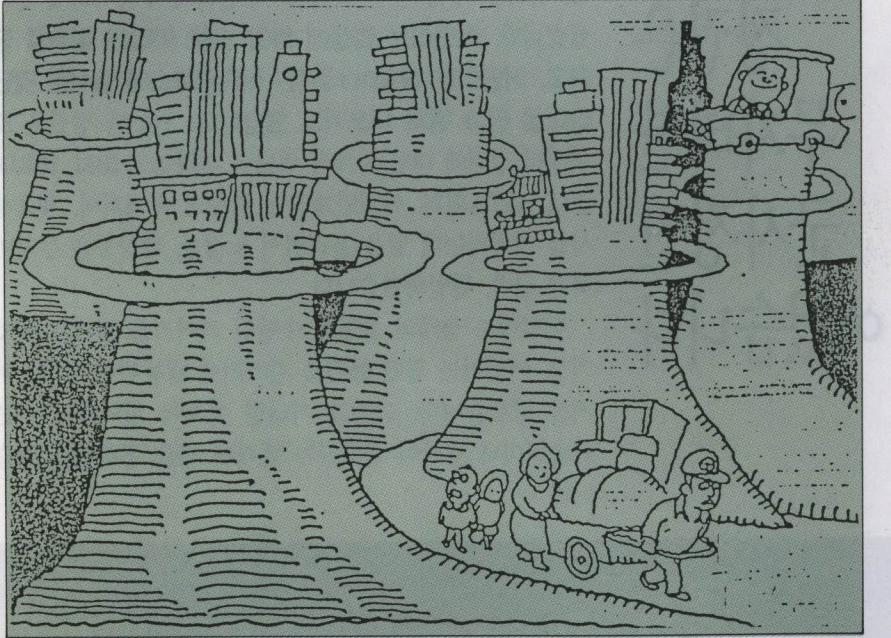


“수서비리는 현정권의 범죄입니다”



88년 올림픽 때문에 노점상, 행상을 하던 분은 87년 12월부터 거의 1년동안 노점상 일제단속을 피해 자리를 수없이 옮겨야만 했고, 때로는 리어커나 좌판을 강제로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도시서민의 집들이 재개발이란 이름아래 처참하게 부서져갔고 발붙일 집도 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서민들의 생활을 위한 안중에도 없는 듯 부정부패에 찌들어 ‘수서택지특혜분양’ 등 재벌을 위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군사정권은 결코 도시서민을 돌보지 않습니다. 다만 철거와 폭력적인 탄압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위생문제, 육아문제, 삶의 설계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군사정권은
결코
도시서민을
돌보지
않습니다.
다만 철거와
폭력적인
탄압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 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시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또 싸워주는 민주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또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계획하는 도시서민 정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 원하지 않는 철거는 하지않으며,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대대적 임대주택 정책과 인근 생활권 조성 정책을 펼칩니다.

둘째 : 의무고용제등을 실현하며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도시서민의 생계대책을 마련합니다.

세째 : 생활의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 전기, 의료등 각종의 보건, 의료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네째 : 택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의무교육기간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다섯째 : 노점상, 행상을 건전하게 양성화 합니다. 또 전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동안 국가가 생계를 보장합니다.

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5 중무B/D 3F
전화 : 785-0091 ~ 5 FAX : 782-9815

민주선전91-A-4



우리는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노임을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 내집마련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아이들의 교육도 제대로 못시켜 한스럽습니다.
- 행상으로 하루하루를 꾸려가지만 그나마 노점상 단속에 생계마저 막연해집니다.
- 전세값이 엄청나게 뛰어올라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 재개발지역, 집단천막촌...언제 철거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 병마에 시달리지만 병원에 갈 형편이 못됩니다.



건 설현장에서 막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아주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파출부로 나가거나, 노점상. 행상을 하거나, 청소를 직업으로 하면서 달동네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는 하나 예전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땅은 아니었을 망정 농촌에서 남의 땅을 갈면서 그런대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살고있는 집이 갑자기 불도 저로 밀려져 버릴 위협, 전세값이 올라 밤마다 잠을 못이루는

고통, 직업병에 시달리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해서 잘살아 보려고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왔던 것입니다.

일제시대때부터 지금까지 정권은 도시에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몰아내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편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이땅의 정권들까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도시서민을 몰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군사정권은 서민을 돌보지 않습니다.

박 정희 군사쿠테타 정권은 1968년 23만 3천가구 1백 27만명의 서민을 경기도 광주에 강제로 밀어 냈습니다. 또 69년, 71년, 77년 봉천동, 청계천, 용두동, 마장동, 왕십리, 영동 등지의 판자촌 주민 수십만 세대를 불도저를 동원하여 철거하고 주민을 도시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생계대책은커녕 살 수 있는 집마저 마련해 주지않고 이를 거부하는 주민만 수없이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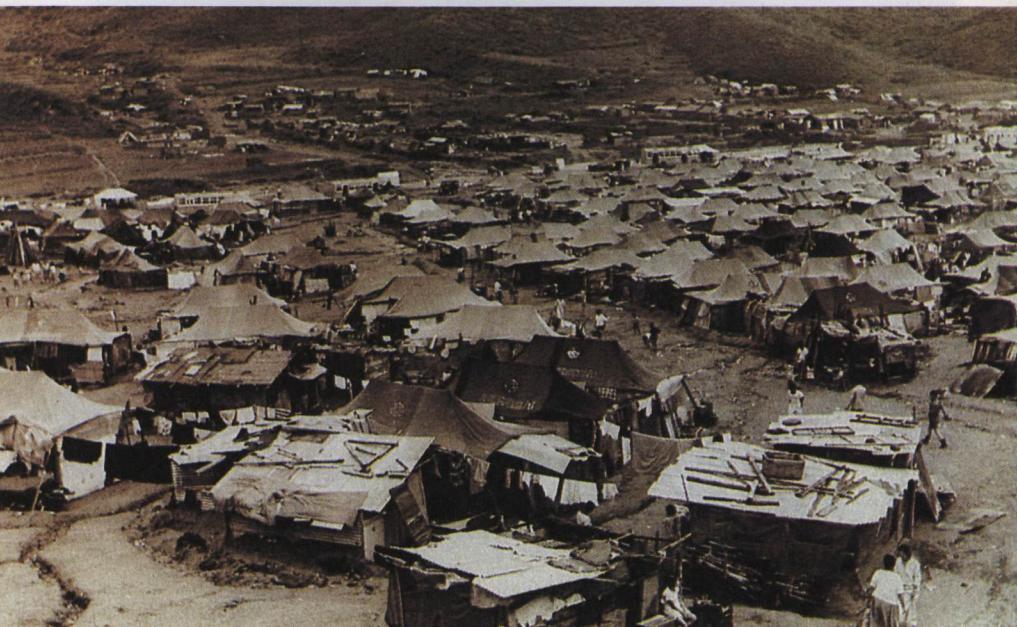
뿐만아니라 행상, 노점상까지 환경정비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도시밖으로 밀어내어,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정권이 합법성과 정통성이 없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 경제부흥만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고, 이러한 생각때문에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며 그린벨트에 불법 호화빌라를 지어도 묵인하였지만 도시서민은 눈에 거슬렸기에 몰아내기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
**군사정권은
합법성과 정통성이
없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
경제부흥만을 돋보이게 하려 했고
이 때문에 도시서민은
눈에 거슬려
몰아내기를 계속 했습니다.**
”

전두환 정권은 무자비한 군사정권 이었습니다

5 · 17군사쿠테타와 양민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84년 목동, 84년 사당동, 86년 상계동, 87년 양평동에서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크레인, 불도저, 경찰, 깡패로 구성된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철거했습니다. 어떤이는 밥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철거를 당하고, 어떤이는 경찰이 내던진 최루탄에 질식한 갓난 아이를 안고 뛰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또 쿠데타 정권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피하려고 IBM, IBRD, IPU, ASTA회의, 아시안게임등 각종의 국제회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노점상, 행상들은 무자비하게 단속, 탄압하였습니다.

어떤이는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리어커를 강제로 빼앗기고, 어떤이는 팔던 물건을 길거리에 냉동댕이쳐지는 처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패에 항의하던 이는 단속반이나 경찰이 휘두르는 폭력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선이주 후 도시계획’의 실상:
서울시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의 집단이주지었던
설악의 모습